

세대가 함께 만든 따뜻한 하루, 어르신들의 빛나는 순간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어르신 1,500여명 한자리에 모여 공연 관람 등 모처럼 웃음꽃
삶의 지혜로 강진 밝힌 어르신들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 '훈훈'

강진군이 16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0월 2일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며,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노인의 날'은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29번째를 맞았다.

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과 흥겨운 장구난타 공연, 민요 무대, 군동 시목경로당의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노인복

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부부 강진을 윤건호·황희순 부부, 모범노인 신전면 박용기, 노인복지 기여자 작천면 김사중, 성전면 이호천 씨가 전남지사 표창을 전달받았다.

군수 표창에는 정숙현(여, 83) 씨 등 11명이 모범노인상을, 김동순(여, 78) 씨 등 11명이 노인복지기여자상을 받았다.

두절환 사명감으로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군동면 최순남(여, 76), 작천면 백학영(남, 84세) 씨가 대한노인회장상을 수상했고, 신전면 안복순(여, 93) 씨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황호용 회장은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행사를 가졌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강진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빛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에는 세월이 담긴 품격과 지혜가 느껴진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웃으시고 즐기시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일자리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거점형 어르신 배려방 사업 확대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경로당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로당 접이식 식탁·소파 지원 등 행정력을 동원해 어르신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구충곤 광양경자청장과 이병희 전남교통연수원장이 10월 17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경자청,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7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원장 이병희, 이하 교통연수원)과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충곤 광양경자청장과 이병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광양만권의 산업물류 확대와 관광량 증가로 인하여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이에 양 기관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

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행사 상호 협력 등이다.

이병희 교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최근 광양만권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있고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도, 진도에 제9호 천사보금자리 완공

지역사회 후원 등... 수해 피해 아동 가정에 새 보금자리 선물

전라남도는 17일 진도군 의신면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남 제9호 천사보금자리 완공식을 개최했다.

완공식은 성미숙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 김희수 진도군수, 도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남 제9호 천사보금자리는 진도군 의신면 수해 피해 가정으로, 지난 2024년 7월 기습적인 호우로 주택이 침수돼 훼손된 아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사회 후원 약 5천만 원 등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완공된 이번 보금자리는 29평형 복층구조로, 지대를 높게 조성해 수해에도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미숙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주거취약 아동 가정을 통해 아동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승원 기자

보성군 보성읍, '사랑의 쌀 나누미(米) 캠페인' 추진

차곡차곡 쌓이는 행복, 퍼지는 나눔의 온기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성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기성)와 보성읍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 안재섭)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미(米)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 참여형 복지 실천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기부와 나눔의 주체가 돼 지역의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

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올해는 벼 병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캠페인 시작 하루 만에 20kg 쌀 40포가 모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인 쌀은 연말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년 동안 사랑의 쌀이 끊이



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성읍희망드림협의체 등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은기 기자



순천시 왕조1동, 순천신협 이불 후원으로 취약계층에 온기

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신혜정)는 지난 16일, 순천신협(이사장 윤정구)으로부터 환절기 및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이불 18채(100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은세상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10년째 지속 해오며, 지역 내 독거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윤정구 순천신협 이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신협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주는 순천신협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된 이불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읍진강기차마을